

百濟의 綠釉석가래 막새기와

—百濟의 圓形석가래막새기와—

井 內 功

一、머릿말

여기에 紹介하는 百濟의 綠釉석가래막새기와는, 과거에 百濟의 瓦磚類에 施釉한 것이 報告된 일이 없는만큼, 學問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일 것이다.

지금 그 綠釉석가래막새기와를 소개하는 기회에, 百濟의 圓形석가래막새기와를 瞥見함과 함께, 유품에 관련된 한 두 문제에 대하여 언급해 보려고 한다.

二、百濟의 綠釉석가래막새기와의 遺品

우선 百濟의 綠釉석가래막새기와의 遺品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전북 益山에 있는 彌勒寺址에서 出土된 것이다. (插圖 1)

그것은 圓形의 석가래막새기와로 생각되는 殘欠으로 橫幅 1.0cm, 縱長 3.3cm의 扇形狀을 하고, 그 표면 가득히 비교적 肉薄의 큰 花瓣이 一枚半만이 볼 수 있다. 花瓣의 瓣端은 切込形式을 보이고, 瓣面은 등골 어지면서, 그 거의 中央部로부터 급속히 內傾하고 있고, 따라서 瓣根部는 매우 낮은 위치에 있다. 瓣根部의 破損狀態로 보아, 아마도 그것에서 中房에 접하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部の 厚는 1cm쯤이다. 그리고 그 殘欠의 外周部에서의 厚는 2.7cm이다. 瓣長은 3.5cm이고, 最大瓣幅은 5.3cm이므로,

$$\frac{\text{瓣長}}{\text{瓣幅}} = 1.5 \text{가 된다. 이 유품을 復元하면, 直徑은 대강 1.6cm 크기의 것으로 花瓣數는 七瓣으로 된다.}$$

外周側面에는 陽線으로 된 鋸齒文이 보이는데, 瓦當表面에 가까이 가

기의 鋸齒文의 底部中央에, 一개의 넓적한 珠文이 附加되어 있다.

瓣面은 마멸되어 있으나, 그 곳과 外周側面의 거의 전체에 퇴색한 녹유가 보인다.

이 유품이 석가래막새기와의 殘欠일 것임은, 百濟 瓦當을 아는 사람으로서, 비교적 容易하다고 생각되지만, 일단 여기서 이 유품이 석가래막새기와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백제의 圓形석가래막새기와를 瞥見하지 않으면 안된다.

三、百濟의 圓形석가래막새기와

중래의 석가래막새기와에 대한 主文獻은, 石田茂作선생의 「槿先瓦考」(銅鐸第七號)와, 村田治郎선생의 「朝鮮の垂木瓦に就いて」(綜合古第十九第二分冊 夢殿論誌 第九號) 일 것이다. 이 두 文獻중 百濟의 圓形석가래막새기와에 대해서는 前者는, 六資料가, 그리고 後者에서는 八資料쯤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는데, 이 두 文獻이외의 것에서는, 그다지 많은 資料를 소개한 것은 없다.

戰後 한국에서도 考古學의 연구가 성행되고 있어, 古代瓦의 研究도, 그 예에서 빠지지 않는다. 특히 百濟瓦에 대해서는, 朴容煥씨의 연구가 두드러져 보이는데, 「百濟瓦當에 관한 研究」(公州大學論文集 第五輯 一九六〇.48.50.51.一九七〇年九.一一.一二月號와 大川) 圓形석가래 막새기와에 대하여서는,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出版된 『百濟瓦磚圖譜』(忠南大學研究所編)는 百濟瓦磚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必要한 圖譜이며, 이것에는 一七種類의 圓形석가래막새기와가 실려 있다.

백제의 석가래막새기와는 圓形과, 수효는 매우 적지만 角形의 形態인 것이 출토되어 있는데, 角形의 것에 대해서는, 이곳에서는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 圓形석가래막새기와에 대해서만 약간 언급하기로 한다.

圓形석가래막새기와의 자료를 다음에 표시하지만, 편의상 이들을 花瓣의 형식에 따라 三形式으로 大別하여 보았다.

第一形式

花瓣의 두께는 얇고, 瓣端이 切込形式인 것.

이 形式에 속하는 것의 花瓣의 瓣長은, 그 最大幅보다도 길다. 또 中房은 비교적 작고, 瓣面에 裝飾性加工은 보이지 않는다. (第一表)

第二形式

花瓣은 비교적 肉厚하고 丸味가 있고, 瓣端은 反轉形式의 것이지만, 일부에는 切込形式처럼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이 형식에 속하는 것은, 一般으로 瓣長과 그 最大幅이 거의 같은 정도의 길이를 하고 있는 듯 하며, 中房徑은 瓣長보다도 길다. 百濟의 석가래막새기와는 이 형식의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表示함에 있어서 이 形式인 것을 中房面의 裝飾性加工의 種類에 따라 다시 細分해 보았다. 즉
A型—中房의 外周緣이 높은 것(第二表)
B型—中房의 外周部에 一重圈의 連珠文을 놓는 것(第三表)
C型—中房의 外周部에 二重圈의 連珠文을 놓는 것(第四表)
D型—中房의 外周部에 放射線帶(花蕊)를 놓는 것(第五表)

第三形式

花瓣은 비교적 肉薄하고, 瓣端이 切込形式인 것인데, 花瓣은 丸味를 지니면서 그의 거의 中央部에서 급속히 內傾한다. 瓣長보다도 瓣幅쪽이 길고, 또 中房은 크다. 이 形式인 것은, 瓣面에 한개의 팔맷트文을 놓고, 그리고 外周側面에 양각인 鋸齒文이 보이는 등 百濟瓦當으로서, 裝飾性이 豊富한 瓦當이다. (第六表)

그리고 백제의 석가래막새기와를 분류 표시함에 있어서, 그들을 각각 A와 B로 구별하였는데, A는 나와 井內潔이 직접 觀察한 것이고, B는 문헌에서 轉載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헌에 보이는 것 중에는 아마도重複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들이 직접 관찰한 것 중에서도, 문헌에서 본 자료와重複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第一 내지 第六表에 기재한 것 以外에 자료는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들을 하나하나 따져, 汗牛에서 追跡調査하는 것은 나로서는 職業上,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것도 말하여 두는 바이다.

(第一表) 第一形式 석가래막새기와 (插圖 2)

數字는 瓣數를 除하고는, cm를 나타낸다. 以下の 表에 對해서도 同一한

B		A		番 號	出土地	直徑	花 瓣			中 房	文獻과 所藏者				
1	2	1	1				瓣數	厚	最大幅			瓣長	瓣端形式		
公里寺址	恩山琴	扶餘山	雙北里	1	出土地	直徑	瓣數	厚	最大幅	瓣長	瓣端形式	直徑	蓮子釘穴數	房	文獻과 所藏者
12.6	8.8	9	9	1	12.6	8.8	8	8	2.5	2.8	3	3	6	角	井內古文化研究室藏
8	8	8	8	8	8	8	8	8	2.5	2.8	3	3	6	角	前揭「百濟瓦磚圖譜」 公州教育大學藏
	薄 약간	薄 약간	薄 약간												
	2.5	2.8	3												
	反轉	反轉	反轉												
	2.5	3	3												
	6														
角	角	角	角												
昭和二二年九月刊	齊藤忠「朝鮮佛教美術考」第三三圖—2	前揭「百濟瓦磚圖譜」 公州教育大學藏	井內古文化研究室藏												

(第二表) 第二形式 A型석가래막새기와 (插圖 3)

A					番 號	出土地	直徑	花 瓣			中 房	文獻과 所藏者			
6	5	4	3	2				1	數	厚			最大幅	瓣長	瓣端形式
守里寺址	扶餘軍	佳增里	扶餘	扶餘	王興寺址	扶餘	定林寺址	臨江寺址	扶餘	扶餘	扶餘	扶餘	扶餘	扶餘	扶餘
12.5	12	22.5	19.5	13.5	18.5	8	8	8	8	8	8	8	8	8	8
中	中1	中	中	中	中	4	3.5	5	5.5	4	5.5	4	5.5	5.5	5.5
3.5	3.5	6	5.5	4	5.5	反轉	反轉	反轉	反轉	反轉	反轉	反轉	反轉	反轉	反轉
5.5	5	10.5	8.5	5.5	7.5	4	4	6	4	6	4	6	4	6	4
角	角	圓	圓	角	角	角	角	角	角	角	角	角	角	角	角
扶餘博物館藏	前揭「百濟瓦磚圖譜」103 公州教育大學藏	前揭「百濟瓦磚圖譜」104 公州教育大學藏	前揭「百濟瓦磚圖譜」109 扶餘博物館藏	前揭「百濟瓦磚圖譜」106 李夕湖氏藏	前揭「百濟瓦磚圖譜」102 扶餘博物館藏	前揭「百濟瓦磚圖譜」113 東國大學藏	前揭「百濟瓦磚圖譜」113 東國大學藏	前揭「百濟瓦磚圖譜」113 東國大學藏	前揭「百濟瓦磚圖譜」113 東國大學藏	前揭「百濟瓦磚圖譜」113 東國大學藏	前揭「百濟瓦磚圖譜」113 東國大學藏	前揭「百濟瓦磚圖譜」113 東國大學藏	前揭「百濟瓦磚圖譜」113 東國大學藏	前揭「百濟瓦磚圖譜」113 東國大學藏	前揭「百濟瓦磚圖譜」113 東國大學藏

B

8	7	6	5	4	3	2	1
扶蘇山城	雙北里	雙北里	雙北里	雙北里	軍守里 寺址	軍守里 寺址	軍守里 寺址
20		19.3	21.2	18.2	12.6	12.7	16.7
10			12	8	8	8	8
反轉		反轉	反轉		反轉	反轉	反轉
5 ?			6	5	4	4	4
					圓 ?	角 ?	角
前揭「朝鮮の垂木瓦に就いて」五七頁附圖第一(京都大學古學教室藏)關野貞「瓦」(古學講座)昭和二年四月刊同	前揭「朝鮮の垂木瓦に就いて」五七頁附圖第一(京都大學古學教室藏)關野貞「瓦」(古學講座)昭和二年四月刊同	前揭「朝鮮の垂木瓦に就いて」五七頁附圖第一(京都大學古學教室藏)關野貞「瓦」(古學講座)昭和二年四月刊同	前揭「朝鮮の垂木瓦に就いて」五七頁附圖第一(京都大學古學教室藏)關野貞「瓦」(古學講座)昭和二年四月刊同	前揭「朝鮮の垂木瓦に就いて」五七頁附圖第一(京都大學古學教室藏)關野貞「瓦」(古學講座)昭和二年四月刊同	前揭「朝鮮佛敎美術考」第三三圖一	前揭「朝鮮佛敎美術考」第三三圖一	前揭「朝鮮佛敎美術考」第三三圖一
朝鮮古蹟研究會「昭和十一年古蹟調查報告」第五四頁附圖第六二「昭和二年七月刊	朝鮮古蹟研究會「昭和十一年古蹟調查報告」第五四頁附圖第六二「昭和二年七月刊	朝鮮古蹟研究會「昭和十一年古蹟調查報告」第五四頁附圖第六二「昭和二年七月刊	朝鮮古蹟研究會「昭和十一年古蹟調查報告」第五四頁附圖第六二「昭和二年七月刊	朝鮮古蹟研究會「昭和十一年古蹟調查報告」第五四頁附圖第六二「昭和二年七月刊	朝鮮古蹟研究會「昭和十一年古蹟調查報告」第五四頁附圖第六二「昭和二年七月刊	朝鮮古蹟研究會「昭和十一年古蹟調查報告」第五四頁附圖第六二「昭和二年七月刊	朝鮮古蹟研究會「昭和十一年古蹟調查報告」第五四頁附圖第六二「昭和二年七月刊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寺佳塔里	寺佳塔里	定林寺址	寺舊衙里	寺舊衙里	佳增里	扶餘	扶蘇山	扶蘇山	扶蘇山麓
17.5	18	20	13.4	13	11.5	8	14.5	16.7	10.9
8	8	12?	8	8	12			8	8
切込	反轉	反轉	反轉	切込	反轉	反轉	反轉	反轉	
7	7	4	5.4	5.2	4				
前揭「百濟瓦磚圖譜」112頁附圖一(扶餘博物館藏)忠南大學校藏	前揭「百濟瓦磚圖譜」112頁附圖一(扶餘博物館藏)忠南大學校藏	前揭「百濟瓦磚圖譜」112頁附圖一(扶餘博物館藏)忠南大學校藏	前揭「百濟瓦磚圖譜」112頁附圖一(扶餘博物館藏)忠南大學校藏	前揭「百濟瓦磚圖譜」112頁附圖一(扶餘博物館藏)忠南大學校藏	前揭「百濟瓦磚圖譜」112頁附圖一(扶餘博物館藏)忠南大學校藏	前揭「百濟瓦磚圖譜」112頁附圖一(扶餘博物館藏)忠南大學校藏	前揭「百濟瓦磚圖譜」112頁附圖一(扶餘博物館藏)忠南大學校藏	前揭「百濟瓦磚圖譜」112頁附圖一(扶餘博物館藏)忠南大學校藏	前揭「百濟瓦磚圖譜」112頁附圖一(扶餘博物館藏)忠南大學校藏
朝鮮總督府「大正十一年古蹟調查報告」第三五頁附圖三(大正十三年三月刊)	朝鮮總督府「大正十一年古蹟調查報告」第三五頁附圖三(大正十三年三月刊)	朝鮮總督府「大正十一年古蹟調查報告」第三五頁附圖三(大正十三年三月刊)	朝鮮總督府「大正十一年古蹟調查報告」第三五頁附圖三(大正十三年三月刊)	朝鮮總督府「大正十一年古蹟調查報告」第三五頁附圖三(大正十三年三月刊)	朝鮮總督府「大正十一年古蹟調查報告」第三五頁附圖三(大正十三年三月刊)	朝鮮總督府「大正十一年古蹟調查報告」第三五頁附圖三(大正十三年三月刊)	朝鮮總督府「大正十一年古蹟調查報告」第三五頁附圖三(大正十三年三月刊)	朝鮮總督府「大正十一年古蹟調查報告」第三五頁附圖三(大正十三年三月刊)	朝鮮總督府「大正十一年古蹟調查報告」第三五頁附圖三(大正十三年三月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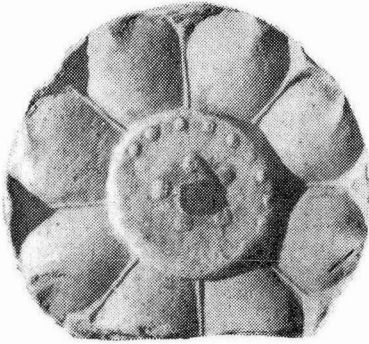


圖 4. 第 2 形式(B) 석가래막새기와 (金剛寺跡出土)
(井內古文化研究室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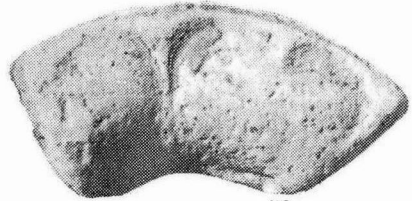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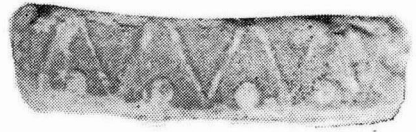


圖 1. 彌勒寺跡出土 綠釉석가래막새기와
(井內古文化研究室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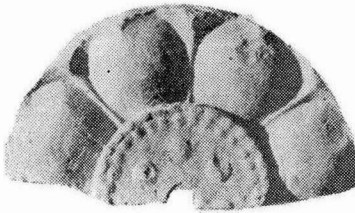


圖 5. 第 2 形式(C) (석가래막새기와 金剛寺跡出土)
(井內古文化研究室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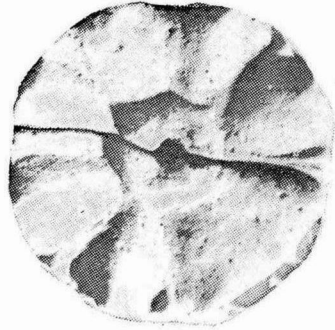


圖 2. 第 1 形式 석가래막새기와 (雙北里出土)
(井內古文化研究室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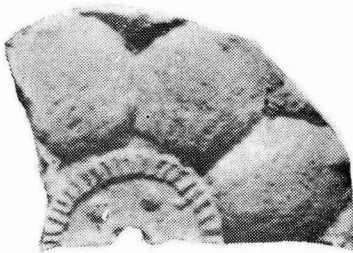


圖 6. 第 2 形式(D) 석가래막새기와 大通寺跡出土
『百濟遺跡の研究』所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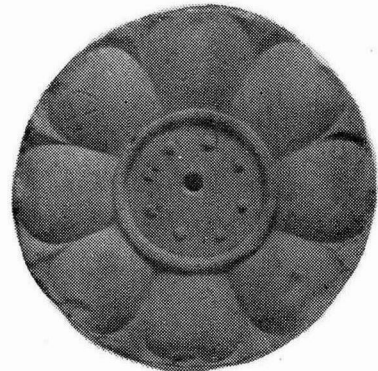


圖 3. 第 2 形式(A) 석가래막새기와 (王興寺跡出土)
(李 夕湖氏 藏)

B	彌勒寺址				角
		7			前掲「百濟遺跡の研
			切込		究」圖版48, 3, 前
					掲「百濟美術」圖版
					三七과 같은

以上에 든 백제의 圓形석가래막새기와는, 연대적으로는, 어느 것이나 泗泚城時代로 비정되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그 以前の 연대인 것이 발견되지 않은 것 같다. 이들의 석가래막새기와는 모두 外周緣을 지니지 않은 蓮華文瓦當이여서, 中房의 中心部가 보이는 것에는, 그 곳에는 반드시 角形, 또는 圓形의 透孔, 즉 釘穴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겠다. 그런 까닭에 백제의 圓形瓦當의 殘欠를 관찰함에 있어서, 이 두개의條件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석가래막새기와로 하고 그들의 조건이 缺除되는 것은 막새기와(鎧瓦)로 해야 될 것이다. 다시 또 百濟의 특히 泗泚城時代의 막새기와의 瓦當에는 아직까지 外周緣이 없는 것은 없는 듯하므로 中房을 缺損한 자료를 보았을 경우에는, 다만 瓦當의 外周緣有無만으로서, 그것이 석가래막새기와인가, 그렇지 않으면 막새기와인가를 판단하여도 難當^二리라고 생각한다.

四、遺品이 석가래막새기와인지 아닌지의 問題

前項에서 나는 百濟의 圓形석가래막새기와는, 瓦當에 外周緣이 없는 것과, 中房에 釘穴이 있는 것이 絶對的條件이라고 하고 또 中房의 缺損한 百濟의 圓形瓦當의 殘欠에서는, 다만 그 外周緣이 없는 것을 석가래막새기와로 하여도 難當^二리라고 말하였다. 이 思考方式이 허용된다면, 내가 소개한 綠釉의 遺品(以下 遺品이라 略稱한)은 막새기와의 殘欠은 아니고, 석가래막새기와의 殘欠이라 할 수 있겠다. 나는 이 유품이 학문적으로 매우 귀중한 뜻을 가지는 자료로 생각하므로, 신중을 기하여 다시 한번 그것이 석가래막새기와임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유품의 出土地인 益山 彌勒寺址에서 檢出되고 있는 同種의 瓦當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유품과 직접으로 比較檢討한 자료는 益山에 在住하시는 宋祥奎氏가 소장하는 두개의 同種의 瓦當殘欠이다. 그 중 한 개는 第六表의 A2이고

그것은 瓦當의 대강 절반 크기의 것이며(挿圖8), 또 다른 한 개는 二枚半의 花瓣이 보이는 크기인데, 이것은 遺品과 같이 中房이 缺損되어 있다. (後者는 第六表에 넣지 않았다.) 이들을 復元하면 유품과 거의 同大가 된다. 이 두資料

의 瓦當蓮華文은 유품과 같은 形式, 같은 크기의 花瓣으로 復元하면 七瓣으로 된다. 어느 것이나 外周側面에 같은 모양의 鋸齒文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이 두개의 자료가 유품과 다른 것은, 花瓣에 한 개의 팔렛트文을 부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팔렛트文도 어느 것이나 一部分의 花瓣에 어스프래하게 보이는데, 그것은 이들 자료의 胎土가 유품과 마찬가지로 淡黃赤色을 보이는 軟質의 것이므로 瓣面이 매우 磨滅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품은 瓣面이 磨滅되어 있으므로 팔렛트文의 有無는 알 수 없지만, 이 두개의 資料와 그 크기, 紋樣, 土質 등 모두가 같으니까 이들은 同一時期에 同一範型으로서 작성되어진 것으로 생각되므로 유품의 瓣面에도 아마 팔렛트文이 부가되어 있었던 것으로 推察하여 좋다고 믿는다. 그리고 또 A2는 中房의 대강 中央部에 角形인 듯한 透孔의 一部分이 남아 있고, 中房의 外周側面은 툭니바퀴와 같은 切込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유품과 다른 一資料의 中房도 같게 施行되어졌던 것으로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다.

第六表 A1은, 이 종류의 석가래막새기와의 全貌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挿圖7) 이 석가래막새기와는 作風, 紋樣 등이 前記한 자료와 全然 같으며, 또 거의 同大이므로, 그들과 오히려 同範으로서 작성되어졌다고 보아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모두가 類似하고 있다. 이 자료는 부여에서 出土되었으므로, 같은 扶餘에서 檢출된 A3과는 어찌면 同範인지도 모르겠다.

A1은 「百濟瓦壘圖譜」에는 彌勒寺址出土로서 紹介되고 있으나, 그것이 收藏되어 있는 東亞大學 博物館에서 金東鎬館長과 함께 조사하였던 바, 瓦當의 裏面에 扶餘出土로 墨書되어 있으므로 그 出土地는 訂正해야 될 것이다. 中房의 거의 中央部에 角形의 透孔이 있고, 또 그 外周側面도 툭니바퀴모양으로 加工되어 있다.

이상 유품이 석가래막새기와일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유품과 出土地를 같이하는 二資料와, 그리고 부여에서 檢出한 完形資料와를 들어서 검토

하였는데, 당연히 이 유품은 第六表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A1-3나 다른자료는 어느 것이나 無釉이다.

外周側面



瓦當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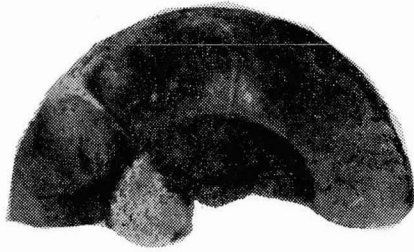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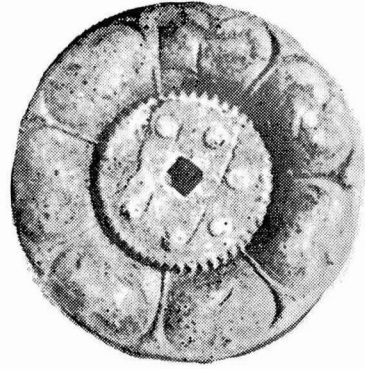


圖 8. 第 3 形式 석가래막새기와 (彌勒寺跡出土)
(宋祥圭氏 藏)

圖 7. 第 3 形式 석가래막새기와 (扶餘出土)
『百濟瓦磚圖譜』(所載)

五、百濟의 綠釉석가래막새기와에 관하여

(一) 益山 彌勒寺에 대하여

本文主題의 綠釉석가래막새기와가 출토한 彌勒寺址는 전북 益山郡 金馬面 箕陽里에 있고, 그 창건에 대해서는 「三國遺事」卷三 法王禁殺조에

始立裁而升遐. 武王繼統. 父基子構. 曆數紀而畢成. 其寺亦名彌勒寺.

또 같은 「三國遺事」卷二 武王조에

一日王與夫人. 欲幸師子寺. 至龍華山下大池邊. 彌勒三尊出現池中. 留駕致敬. 夫人謂王曰 須創大伽藍於此地. 固所願也. 王許之. 詣知命所.

問填池事. 以神力一夜頽山填池爲平地. 乃法像彌勒三會. 殿塔廊廡各三所

創之. 額曰彌勒寺 國興寺

라 있음에서, 第三〇代百濟王인 武王(六〇〇—六四〇年)의 연대 즉 제 7세기前半에 建立되었다고 보아서 좋다. 또 『道遙山烟起寺蹟記』에, 백제의 孝順王(法王)이 僧을 華嚴寺에 度하였다는 일, 武王이 彌勒寺를 建立한 일, 新羅의 金大城이 吐含山佛國寺를 建립한 일 등을 佛敎界의 大事件으로서 든 것을 보더라도, (今西龍 『百濟史研究』 五六九頁에서) 武王 治世에 彌勒寺가 창建된 것을 긍정하여 좋을 것이다. 제 7세기前半에 建립한 彌勒寺는, 그 후도 오랜동안 法燈을 끄는 일없이 존재한 듯하고 조선조의 太宗王七年(一四〇七年)에는, 中神宗의 名刹로서 資福의 寺院으로 지정되었고, 또 『東國輿地勝覽』에도 現存寺院으로 記載된 것에서 廢寺가 된 것은 一四〇七年이후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二) 瓦當外周側面의 文樣에 대하여

나의 알고 있는 限에서는, 百濟瓦當의 外周側面에 장식을 附加한 것은, 第三形式의 圓形석가래막새기와 뿐이다.

中國에 있어서 百濟末期경에 상당하는 年代, 즉 唐初頃이나, 또는 그 以前의 瓦當의 外周側面에, 裝飾이 부가되었던 것이 있었던지에 대하여 지금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지만, 統一新羅의 最盛期에 이와같은 技法이 盛用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技法은 당시 先進國家이었던 唐으로부터 導入된 것이리라라고 추측된다. 年代的으로는 조금 올라가지만, 百濟末期頃으로 보여지는 第六形式의 그것의 導入源도 마찬가지로 唐이다. 어떻

는 간에 이 技法은, 高句麗의 瓦當에도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듯 하나, 적어도 韓半島의 三國사이에서는, 百濟에서 創用된 기법이 라고만은 말할 수도 좋을 것이다. 특히 백제의 그것은, 統一新羅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간소한 文樣인 것에는 주목해야 될 것이다.

(三) 古代의 施釉瓦에 대하여

陶器 등의 土製品에 釉藥을 칠하여서 燒成하는 方法이, 중국에서는 이미 漢代에 盛行하고 있었음은, 수많은 유품으로 周知되는 일이지만, 施釉瓦가 어느 시대에 創用되었던가에 관해서는 不明하다. 그렇지만 『格致鏡原』에 인용한 『郡國志』에

朔方大平城 後魏穆帝治也。大極殿琉璃臺及鴟尾。悉以琉璃爲之。

라 있음으로 해서 제 5세기에는 施釉의 鴟尾가 사용되었던 것을 안다.

일찌기 關野貞박사는 大同의 北魏의 故城에서 綠釉瓦當의 小殘片을 拾得한 일이 있는데, (關野貞『支那의 建築과 藝術』一六), 그것 以前의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樂浪郡時代의 綠釉

博의 斷片이 土城에서 檢출되고 있지만 朝鮮總督府 『樂浪郡時代의 遺蹟』本文九四圖 昭和二年三月刊

만 그것 만으로서 당시의 瓦類에도 釉藥加工이 행하여졌다고 볼 수는 없다. 唐代의 자료로서 唐太宗貞觀八年(六六二年) 創營이라고 말하는 長安 大明宮의 宮址에서 關野博士가 채집한 綠釉瓦當(前書一一九一一〇頁)이나, 一九五七年 一〇월부터 一九五九年 五月까지에 행하여진 同宮址의 發掘調査시에 含光殿址에서 檢출된 綠釉蓮花博의 殘欠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唐長安大明宮』中國田野考古學報告集『考古學專刊丁種第十一號』一九五九年刊五四頁과 圖版伍伍14) 등이 있다. 渤海

國의 首都라고 말하는 上京龍泉府址에서 綠釉의 수막새(鏡瓦), 암막새(宇瓦), 丸瓦 鬩斗瓦나 綠釉의 鴟尾, 鬼瓦, 裝飾瓦의 殘欠이多數檢出되어

있는데, (東亞考古學會『東京城』東方考古學叢刊 甲種第五冊四三、四八、四五—五五—五六頁과 圖版七九、八六—九一、九六、昭和十四年三月刊)

渤海文化는 唐文化 그대로의 계승이었던 것으로 한다면, 唐에서는 施釉瓦類는 宮城 등의 특별한 建築物에 비교적 多用된 듯하다고 逆推할 수가 있다.

이상 살핀 바에서 瓦類에 처음으로 釉藥加工하였다고 생각되는 연대는

지금으로부터는 자료로 보나 문헌에서 보아도, 제 5세기로 비정하여 좋으리라고 믿는다.

百濟 泗泚城時代의 後半에 나타난 綠釉瓦의 施釉技法은, 文化導入源이었던 唐에서 직접 傳承된 것에 틀림이 없겠지만, 高句麗시대의 瓦類에 施釉한 것이 檢出되고 있지 않은 現在로서는, 이곳에서 소개한 유품은 韓半島에서는 最古의 施釉瓦라 할 수 있겠다.

六、맺는 말

統一新羅時代의 瓦當 가운데, 특히 경주의 四天王寺址나 臨海殿址 등에서 종종 施釉된 것이 檢출됨으로, 古代朝鮮에서 施釉瓦當은 오로지 統一新羅, 특히 그 最盛期에 創用된 것으로 보기 쉬웠지만, 여기서 소개한 百濟 泗泚城時代後半으로 비정되는 綠釉석가막새기와의 유품으로서, 그것은 訂正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本文中, 稀有的한 백제의 綠釉석가막새기와를 소개함과 동시에, 종래에 等閑視하기 쉬웠던 백제의 圓形석가막새기와를 瞥見하고 또 百濟 綠釉석가막새기와에 관련된 한 두가지 문제에 언급하였다.

本文의 記載를 막음함에 있어서 느낀 것은, 百濟의 석가막새기와에 때때로 直徑二〇cm 以上の 큰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泗泚城時代의 建築物 가운데는 매우 굵은 석가래를 사용한 것도 있다는 것이다.

摺筆함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助援을 하여 주신 黃壽永교수를 비롯하여 韓國 여러분 또 나의 瓦當研究에 따뜻한 敎導를 보내 주신 恩師 京都大學 名譽敎授 村田治郎선생께 충심으로 謝意를 표시하는 동시에, 번역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金禧庚氏에게 深謝한다.

(追記)

第三形式석가막새기와(第六表)의 A-1과 3의 出土地에 대하여, 나는 각기의 記錄을 조사하여, 前者를 扶餘, 後者를 扶餘附近으로 하였는데, 黃壽永선생으로부터, 이 형식에 속하는 것은 益山地方에서만, 더욱이 彌勒寺址에서 출토하는 獨特한 瓦當文樣이라고 하는 敎示를 받았다. 따라서 이 指摘이 바르다면은, 마땅히 前記의 二資料의 出土地는 어느 것이나 彌勒寺址로 訂正해야 될 것이다. (金禧庚譯)